

# 1세대 한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 드러난 중산층 욕망과 시대상

Middle-class Desires and the Times Revealed in the First-generation K-drama <What is Love>

한승우\*

**국문초록** <사랑이 뭐길래>는 중산층 가정의 식생활, 취향, 교육적 지향점, 언어 사용법 등을 전시하듯 보여주며, 중산층의 품위와 문화가 무엇 인지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작품이다. 한국 사회의 풍속을 조망한 이 드라마는 뜻밖에도 중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게 된다. 국가와 문화가 가진 정체성은 서로 달랐지만,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중산층 담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청자들도 역시 드라마가 보여주는 중산층다움에 관한 욕망에 끌렸고, <사랑이 뭐길래>에 감응하였다.

다른 두 나라의 비슷한 세태와 욕망은 하나의 드라마를 매개로 공명했고, 그것이 뜻밖에도 한류라는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대적 욕망에 대한 진솔한 표현과 비판을 가장 한국적인 틀에 담아내어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세계인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K-드라마의 미덕이라는 점을 가장 처음 보여준 작품이 1세대 한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이다.

**핵심어** 한류, K-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중산층 담론, 시대상

- 차례**
1. 한국 드라마 속 <사랑이 뭐길래>의 위상
  2. 중산층에 대한 환상과 중산층다움의 부상
  3. 가치관의 충돌과 시대상의 재현
  4. K-드라마가 보여준 중산층 판타지
  5. 결론

래 신드롬<sup>1</sup>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높은 시청률과 많은 화제를 불러온 드라마였다. 당시 시청 점유율 85%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범국가적 행사였던 88올림픽과 시대적 사건이었던 국회 청문회의 시청률을 가볍게 넘어선 한국 신기록급<sup>2</sup>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사랑이 뭐길래>는 평균 시청률 59.6%로 역대 1위, 최고 시청률 64.9%로 역대 2위를 기록<sup>3</sup>하고 있다. 극중 삽입된 노래 「타타타」는 단박에 인기가요 순위 상위권에 기록되면서 무명에 가까운 가수 김국환을 하루아침에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고<sup>4</sup>, 「가족 간의 예절 파괴」<sup>5</sup>, 「만화적 상황 설정」<sup>6</sup>, 「결

## 1. 한국 드라마 속 <사랑이 뭐길래>의 위상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MBC가 제작한 주말 드라마로, 1991년 11월 23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55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방영 당시 '사랑이 뭐길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1 「M-TV '사랑이 뭐길래' 내일 끝내, 『동아일보』, 1992.5.30.

2 김종철, 「'사랑이 뭐길래'와 '땡노」, 『한겨레』, 1992.2.15.

3 윤호진, 『한류 20년, 대한민국 빅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0쪽.

4 박신연, 「'타타타' 증후군 중년 여성들에 급속 확산, 『경향신문』, 1992.2.11.

혼 의미 왜곡<sup>7</sup>, ‘언어폭력<sup>8</sup>’ 등의 논란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드라마의 인기는 연기자 전원을 최고의 인기 배우로 부상 시켰는데, 많은 광고 및 잡지의 지면을 장식하면서 종영 이후에도 큰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sup>9</sup> 특히, 아버지 역할을 맡은 이순재는 <사랑이 뭐길래> 방영 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sup>10</sup> 이에 경쟁자와 상대 당은 “TV 인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비열한 수법”<sup>11</sup>이라는 맹비난을 쏟아 부었다. 이순재 역시 “대밭이 아버지 덕을 단단히 봤습니다”<sup>12</sup>라며, 드라마 속 인기가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TV 속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sup>13</sup>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면서, 매스컴 속 이미지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sup>14</sup> 이처럼 <사랑이 뭐길래>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은 시대적 가치관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담론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져갔다.

<사랑이 뭐길래>에 대한 혹독한 평가의 소리도 들린다. 신태섭씨는 월간 <말> 2월호에서 <사랑이 뭐길래>는 진실이 별로 없지만 대리욕망을 충족시키고 언어의 유희를 즐기게 하는 데는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글은 어느 대학의 대자보에 그대로 인용되었고, 그 대자보에는 “수업은 빠

저도 이 드라마는 꼭 보겠다”는 낙서가 더해졌다.<sup>15</sup>

<사랑이 뭐길래> 대자보 사건은 이 드라마가 지닌 논쟁적 지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 월간 『말』에 신태섭은 <사랑이 뭐길래>가 “중산층 신화로 시청자에게 왜곡과 위안을 주려 할 뿐”, “진실 없는 재미”만을 선사하는 드라마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또, 김수현의 대사는 “언어유희의 말초적 쾌감”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다.<sup>16</sup>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신태섭의 글을 인용하며 진실성 없는 드라마의 유희에 현혹되어 시대적 문제들을 외면하는 실태를 꼬집는 대자보가 붙었고, 여기에 “수업은 빠져도 이 드라마는 꼭 보겠다”라는 익명의 낙서가 더해졌다. <사랑이 뭐길래>의 대자보 논쟁은 당시 대학생들이 가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드라마는 시간을 때우는 저급한 수준의 유희라는 의견과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아가는 거대한 힘을 지닌 문화 현상이라는 관점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었다. <사랑이 뭐길래>가 당시 한국 사회에 미친 파급력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매체 속 대중문화의 힘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사랑이 뭐길래>는 단순 드라마를 넘어, 다양한 사회 담론 형성과 논쟁의 대상이 된 문제적 작품이기도 했다.

<사랑이 뭐길래>가 가진 매력은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1992년 해외공보관(현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홍콩의 한국 영사관으로 보내는 외교 행랑에 <사랑이 뭐길래>의 베타맥스 테이프를 은밀히 넣어 홍콩 ATV가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방송하도록 설득하면서 시작되었다.<sup>17</sup> 결국, <사랑이 뭐길래>의 확산은 공보처에 의한 막후 노력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sup>18</sup>, 이는 드라마 수

5 진성호, 「비현실적 묘사로 무리한 전개」, 『조선일보』, 1992.5.12.

6 홍호표, 「‘재치’로 포장된 ‘언어 폭력’ ‘사랑이 뭐길래」, 『동아일보』, 1992.4.23.

7 강영구, 「TV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저질 시비」, 『매일경제』, 1992.2.11.

8 홍호표, 앞의 기사.

9 박성수, 「‘사랑이 뭐길래’ 열풍 CF ‘강타」, 『경향신문』, 1992.3.2.

10 최병준, 「92 대중문화 화제의 TV프로 감각적인 코믹드라마 열풍」, 『경향신문』, 1992.12.22.

11 「‘사랑이 뭐길래’ 출연진 참석 설정 중량감」, 『조선일보』, 1992.3.20.

12 「만물상」, 『조선일보』, 1992.3.31.

13 최성민, 「드라마 주인공 이미지에 따라 투표 ‘사랑이 뭐길래’ 이순재씨 당선에 영향」, 『한겨레』, 1992.8.19.

14 주정민, 「텔레비전 드라마의 이미지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의 이순재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2.

15 김종철, 앞의 기사.

16 신태섭, 「‘사랑이 뭐길래」, 『말』, 1992.2, 238쪽.

17 윤호진, 앞의 책, 20쪽.

18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MBC TV의 주말연속극 <사랑이 뭐길래>가 홍콩 TV를 통해 홍콩 및 인근 중국 광둥성 주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라고 공보처가 25일 발표. 주 홍콩 영사관 공보관실은 홍콩의 유력 TV 방송사인

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이후 드라마는 홍콩과 인근 중국 광둥성 주민들에게까지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97년에는 중국 CCTV의 채널 1을 통해 정식 방영되었다. 97년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중국 CCTV 채널 1 <爱情是什么>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는데, 평균 시청률 4.2%로 CCTV의 수입 외화 방영 역사상 2위를 기록한다. 또한, 98년 7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토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CCTV 채널 2를 통해 재방송되기도 했다.<sup>19</sup> <사랑이 뭐길래>는 평균 시청률 4.3%를 기록하면서 99년 아시아에서 방영된 전체 드라마들 가운데 5위를 차지하였고,<sup>20</sup> 1억 5,0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으면서<sup>21</sup> 한류 현상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98년 보이 그룹 H.O.T의 인기와 맞닿게 되면서, 중국 내외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 문화를 일컫는 ‘한류’라는 조어(造語)가 탄생하였다.<sup>22</sup>

<사랑이 뭐길래>에 환호하고 H.O.T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어리둥절해 하였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문화 현상이었기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들이 대부분이었다.<sup>23</sup> 그러나 한류 현상은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K-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의 시초에 위치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드라마에 나타난 당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징후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분석하고, 어떠한 지점이 중국 시청자들의 공감과 맞닿을 수 있었는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과정 속에서 드라마가 방영되던 1990년대 초반에는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대중문화 현상의 일각을 재조명하고, 이것이 한류의 시발점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중산층에 대한 환상과 중산층다움의 부상

<사랑이 뭐길래>는 두 가정이 사돈을 맺게 되면서 일어나는 갖가지 갈등과 충돌을 코믹하게 엮어 나가는 가족 드라마식 구성을 갖는다. 이사장(이순재)은 인쇄업체를 경영하는 알부자로 남가좌동에 살고 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둔 다소 괴팍한 성격을 지닌 50대 가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가부장제의 신봉자이며 동시에 남성 우월론자로 그의 아들 이대발도 같은 가치관을 전수받았다. 이사장의 부인 순자(김혜자)와 딸 성실은 그런 이사장과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부장에 의해 억압받아온 여성들이다. 이사장의 호통에 순자는 별별 떨며 위축되고, 성실은 남아선호사상의 피해자로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박이사(김세윤)는 항공사 중역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애처가로 등장한다. 그의 부인 심애(윤여정)는 강렬한 자기 성취 욕구를 소유하고 있으나 시어머니와 시이모들까지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전업주부로서 좌절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박이사는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차별 없이 성장시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은, 정은, 정섭은 모두 자유롭고 민주적인 가치관을 습득하였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대발과 지은이 만나 결혼하면서 두 집안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은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A-TV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사랑이 뭐길래」를 방영, 한국인의 생활상을 소개하기로 했다고 공보처에 보고해 온 것. 「TV극 '사랑이 뭐길래' 홍콩·중국에 수출 방영」, 『매일경제』, 1992.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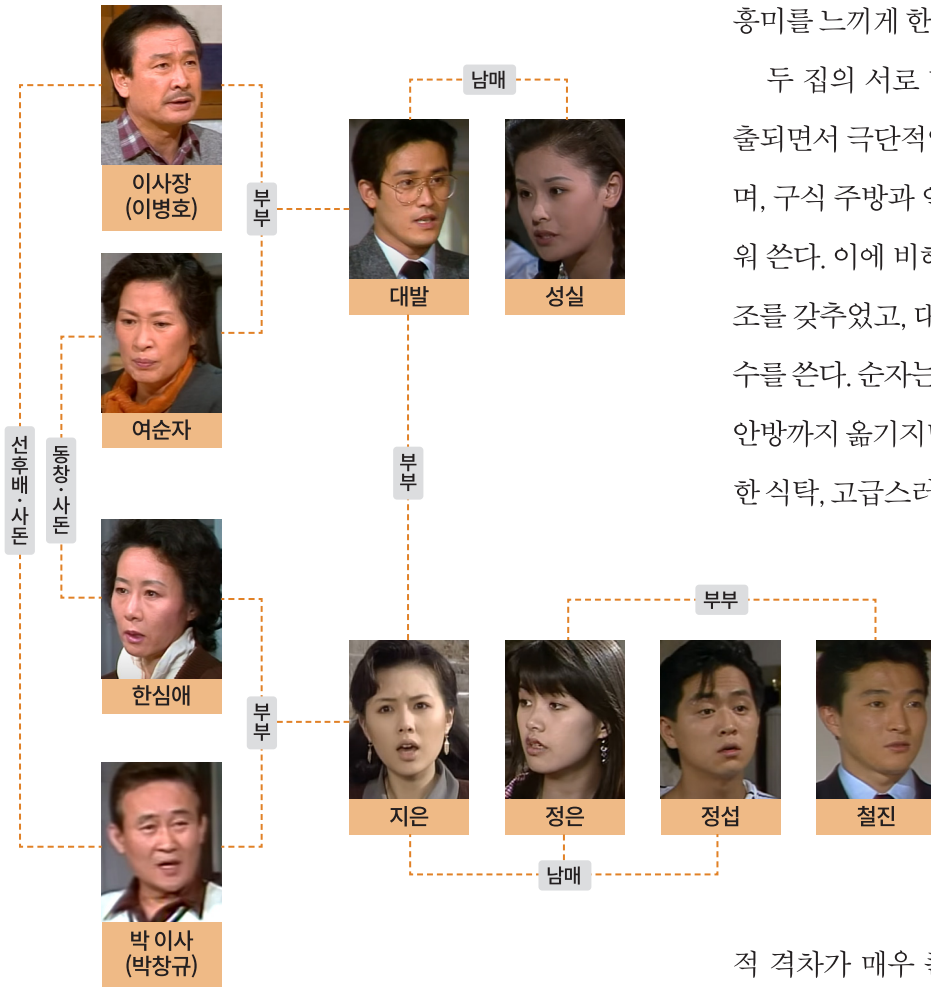
19 박재복, 「글로벌시대 한국 TV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MBC프로그램의 해외 수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7쪽.

20 이경자, 「한·중 프로그램 교역과 중국 시청자 반응」, 『중국방송산업 현황과 상호교류 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 151쪽.

21 권호영·김영수,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송영상물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11쪽.

22 김길성, 「방송콘텐츠가 한류문화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8쪽.

23 배국남, 「5000년 역사 속 가장 큰 문화적 사건, '한류': <사랑이 뭐길래>에서 싸이까지」, 『방송작가』 80, 한국방송작가협회, 2012, 17쪽.



〈사랑이 뭐길래〉 인물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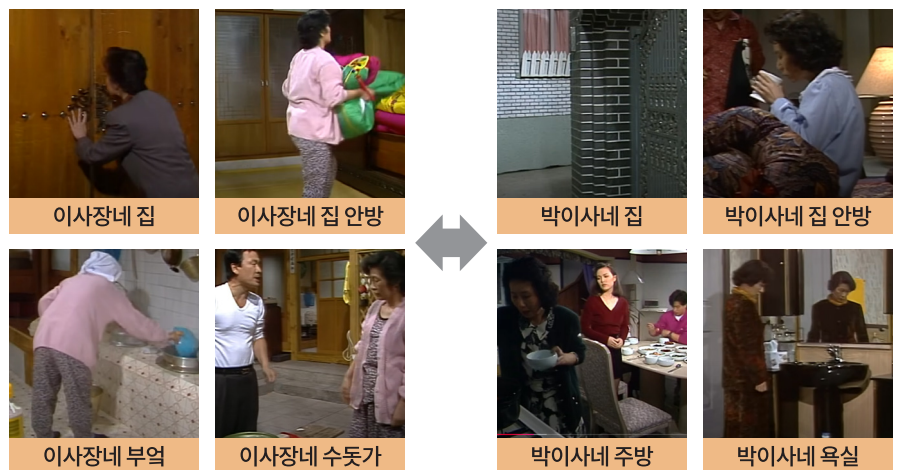
공부하던 중 대발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과감한 결단력과 주체적 의지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지은은 대발이 가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극 초반에 두 인물의 가치관과 성격은 매우 강렬하게 대립하고, 이것은 두 가정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극의 핵심적 갈등 요소로 자리 잡는다. 절대로 한 가족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긴장감이 시청자들을 드라마 속으로 몰입시켰고, 곧 드라마의 흥행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하나의 사안을 두고 카메라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서로 다른 판단과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비교하는

흥미를 느끼게 한다.<sup>24</sup>

두 집의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가풍이 대조적으로 연출되면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사장네 집은 한옥이며, 구식 주방과 연탄을 때는 구조로 씻을 때마다 물을 데워 쓴다. 이에 비해, 박이사네 집은 양옥에 서구식 주방 구조를 갖추었고, 대리석 욕실에서 기름보일러로 데워진 온수를 쓴다. 순지는 불편한 주방에서 좌식상에 음식을 차려 안방까지 옮기지만, 심애는 잘 갖추어진 주방 기구와 화려한 식탁, 고급스러운 식기가 모두 구비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두 가정의 안방 모습은 더욱 대비된다. 온돌에 이불을 깔고 자는 이사장네와는 달리, 박이사네는 침대를 사용하면서 나이트가운을 걸쳐 입고, 블루마운틴 원두커피를 즐긴다.

드라마 속 두 가정이 지닌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상은 두 가정 모두 사회 및 경제적 지위로 볼 때 중산층에 해당된다.<sup>25</sup> 이사장이 구식 한옥에서 굳이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린 시절 경험한 가난 때문에 검소를 넘어 구두쇠가 되



24 김길성, 앞의 논문, 27쪽.

25 〈사랑이 뭐길래〉는 제작 초기부터 드라마의 설정을 중산층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경쾌한 코믹터치 '사랑이 뭐길래」, 『동아일보』, 1991.11.1; 진성호, 「김수현流 감성적 언어 짜릿」, 『조선일보』, 1991.12.24.

어 가정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장의 집이 극도로 겸소한 까닭에 그 반대편에 있는 박이사의 집 외관과 인테리어, 고급 가구들이 더욱 화려하게 느껴진다. 이 무렵 <사랑이 뭐길래>에서는 드라마 속 가구 협찬에 대한 논쟁이 크게 거론되기도 했다. 박이사의 집안에 제공된 화려한 가구 업체의 매출이 오르면서 요즘 드라마 속 PPL(Product Placement)과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인테리어와 주방 가전 등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실질적인 소비로까지 연결되면서 과소비 및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정적 여론과 비난을 낳기도 했다.<sup>26</sup>

두 가정의 대조적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1990년대 초반의 중산층 가정의 내밀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두 가정의 모습이 여실하게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류가 어디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감각하게 되었다. 특히 박이사네 집이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이상적인 중산층 가정에 대한 환상을 현실화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순자보다는 심애가 되고 싶어 했으며<sup>27</sup>, 한옥보다는 양옥에서 번듯하게 사는 박이사네의 집을 갈망하였다. 이 지점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표상한 ‘중산층 신화’를 포착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제 성장만이 현실을 타계할 유일한 방안임을 주입했고, 그중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들 중에는 화이트칼라 직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교육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논했으며, 해외의 평가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에는 인구의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하였고<sup>28</sup>,

1992년에는 86.8%가 중산층이라고 답할<sup>29</sup> 정도로 생활 수준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 무렵, 한국 사회에 소속된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에 속해있다고 자평했고, 그것은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온 스스로의 성취에 대한 훈장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는 1980년에 0.37이었다가 1995년에는 0.28로 떨어졌는데<sup>30</sup>,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기 동안 소득 불평등이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주었다. 즉,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부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경제적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까운 과거에 비해 나아진 삶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호시절이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은 달라진 경제적 수준에 맞는 사회적 위치를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때 흔히 사용한 개념이 ‘중산층’이었다.

단순히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소득에 따른 중산층을 가려 내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얻는 수입으로 빠듯하게나마 수준급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선에서부터 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약간의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입이 지출을 웃도는 여유를 가진 선까지로 한정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테두리 속에 들기만 하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을 법하다. 물론 <수준급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상식적이고 막연한 개념이다. 허나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막연한 것이고 동시에 다양하며 중간적 존재라는 과도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면 그저 약간의 무리는 하면서도 애들 학교 보낼 수 있고, 체면치레 할 만큼 교제도 하고, 가다가 툴툴이 문화비 지출도 가능한 정도를 두고 수준급이라 규정해서 무리가 아닐 줄로 안다.<sup>31</sup>

리 높다, 『매일경제』, 1989.4.21.

29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 출판부, 2005, 115쪽.

30 구해근,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창비, 2022, 15~16쪽.

31 이형, 『당신은 중산층인가: 한국경제의 신화와 실상』, 삼성출판사, 1980, 217쪽.

26 「M-TV <사랑이...> 특정 가구 세트 꾸며 말썽, 『조선일보』, 1992.3.15.

27 「<사랑이 뭐길래>의 지은이집 선호 갤럽조사, 『경향신문』, 1992.4.3.

28 “갤럽연구소가 조사한 바로는 국민의 75%가 자칭 중산층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기세형, 「긴급 진단 우리 경제 어디로...(6) 분배 구조 비판 목소

“수준급 생활”, “약간의 저축”과 같은 막연한 개념들이 오히려 자신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기에 좋은 두루뭉술한 기준이 되어 주었다. 중산층은 힘든 한국의 역사를 거치 온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개념에 가까웠다. 많은 이들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지닌 과도기적 어감을 선호했는데, 언제든지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중산층은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단어로 쓰였다. 사회적 계층을 ‘중산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것을 위해 ‘중산층다움’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브루디외가 말한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을 떠올려 볼 수가 있다.

아비투스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사회로부터 개인이 체득한 제반의 총체를 의미한다. 일상적인 태도와 사고방식, 감정과 언어 표현의 방식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아비투스에 해당된다.<sup>32</sup> 브루디외는 아비투스가 계급구조의 재생산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분석하고, ‘구별짓기(*distinction*)’를 통한 문화계급론을 주장하였다. 즉, 부르주아계급과 민중계급의 가정에서 공유하는 교양의 방식은 다른 것이며, 그들이 먹는 음식과 식사의 방법, 선호하는 음악, 그에 따른 정서의 교류, 서가에 꽂힌 책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소유물을 획득하고 전시하며 계급을 구별짓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브루디외는 ‘문화 자본’이라고 일컬었다. 결국 문화는 부르주아 계급의 구별짓기 전략에서 우월성을 갖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sup>33</sup>

그러나 한국은 브루디외가 분석한 프랑스 사회와는 다소 달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전쟁과 새마을 운동 등의 대변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통성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상징은 다소 희미했다. 또한,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성취를 통해 이른바 ‘줄부’가 되어 상류

층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했던 시기였다. 당시 민중계급에게는 과거보다 나아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체감하면서 높아진 위상에 맞는 새로운 구별짓기가 요구되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일상, 가치관 모두에서 중산층다움을 소유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시기에 <사랑이 뭐길래>는 중산층 가정에 미세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그들의 식생활, 취향, 교육적 지향점, 언어 사용법 등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전시하듯 보여준 드라마였다. 당시 우리나라 중산층의 모습 중 가장 극단에 위치할법한 이사장네와 박이사네의 모습을 브라운관 위에 대조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중산층의 품위와 문화가 무엇인지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보통의 많은 가정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을 보여주던 이 드라마는 점차 양식에 걸맞은 가치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까지 주제 의식을 확장시킨다.

### 3. 가치관의 충돌과 시대상의 재현

<사랑이 뭐길래>는 집안의 외관과 내부 구조, 가구와 가전, 인테리어와 세간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비교하며 전개된다.<sup>34</sup> 특히, 드라마에서 자주 노출되는 두 가족의 식사 모습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 된다. 이사장네 가정은 좌식상에 남성과 여성이 따로 앉아 식사를 한다. 남·여로 구분해 식사하는 광경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이사장네의 가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반면에, 박이사네의 가정은 할머니부터 막내까지 한 식탁에서 공평하게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가정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32 뵈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上)』, 새물결, 2006, 13쪽.

33 위의 책, 35~45쪽 참조.

34 금인숙은 <사랑이 뭐길래>의 갈등 상황을 “<전통과 서구>과 <남성과 여성> 두 대립항 문화가치의 긍정적 요소를 인정하는 만큼, 대립가치의 갈등은 변증법적 운동과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형태를 띤다”라고 분석하였다. 금인숙, 『『사랑이 뭐길래』와 『義不容情』: 홍콩과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기호학적 비교분석』, 『한국사회역사학회』 4,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50쪽.



이사장네 식사 모습



이사장 부부



박 이사네 식사 모습



박 이사 부부

방식으로 소통하며 단란한 식사 시간을 갖는 모습도 함께 연출된다.

두 가정의 부부 관계 역시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며 대조된다. 이사장 부부는 남편이 상석에 앉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반면, 순자와 딸 성실은 무릎을 꿇고 앉아 주눅이 든 상태로 이사장의 말을 경청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와는 반대로, 박이사 부부는 항상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 말할 때에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이런 극단적인 대조와 비교 형식의 구조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좋은-나쁜’, ‘선호-불호’라는 가치 판단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사장네와 박이사네 중 어떤 가풍이 더 올바른가 혹은 좋은가라는 식의 선택 앞에서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골라 지지하게 된다. 또한, 어떤 가정이 더 이상적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투영하기도 한다.

지은이 대발과 결혼하면서 남·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다. 지은은 그동안 자신이 교육 받은 대로 거침없이 주장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이사장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이를 지켜본 순자와 성실은 크게 놀라지만, 며느리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해 주는 이사장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을 바꿔 나간다. 그러던 중 ‘성실의 모델 사건’이 터지고, 이사장네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성실이 출연한 광고를 보게 된 이사장은 크게 화를 내며 가위를 들고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덤벼들고, 순자는 그런 이사장을 몸으로 막아낸다. 여기에 아들 대발과 며느리 지은까지 한데 엉키게 되고, 일대 육탄전이 벌어진다.

이사장: (며느리에게) 너 나한테 시대가 어찌고 민주가 어찌고 할 생각마라. 난 용납 못해. 내 자식이 다리 내놓고 가슴 내놓고 귀신 떡칠을 마냥 그러 붙이고 술장사마냥 웃고 다니면서 만천하의 공계적으로 인물팔고 다니는 거 난 용납 안 해. 당신 말처럼 딸년 덕분에 자가용 비슷하게 내 신세가 늘어져도 난 싫어.

순자: 왜 싫어요?

이사장: 내 맘, 내 마음이 싫어.

순자: 요즘은 좋은 집안 애들도 지 마음대로...

이사장: 좋은 집안 나쁜 집안이 어디 있어? 그 기준이 뭐야!

순자: 그러니까 애가 끝까지 해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장: 죽고 싶니?

성실: 죽어도 하겠어요.

순자: 그럼 내가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지요.

이사장: (분노에 온 몸을 떨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사장이 문을 부수고 나간다. 마당에서 세간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간다.)

- (사랑이 뭐길래) 39회 중

보수적 사고관을 가진 이사장은 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얼굴과 신체를 드러내는 모델이 된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그동안 이사장은 독재적이면서도 고루한 관념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왔다. 또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해 왔고, 그런 교육 방식이 문제없이 통용되어 왔었다. 늘 그래왔듯이 이사장은 강압과 강요로 딸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성실은 끝까지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맞선다. 그동안 성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순응하던 온순한 딸이었으나 자신의 꿈을 쟁취하기 위해 강렬히 저항하면서 가부장적 아버지에게 정면 도전한다. 이사장은 딸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급기야 안방 문을 부수고 나가 마당의 세간을 모두 집어던진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권위로 운영되던 집안의 체제는 조금씩 균열이 생겨난다.

순자: 여자도 남자랑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치자. 하늘이 땅보다 더 위대하고 높고 훌륭하다는 말이 어딴니? 그런 차이가 어디 있어? 그건 다 음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야. 양이 음보다 못할 것도 없고, 양이 음보다 나은 것도 없다. 양 없이 음이 존재하고, 음 없이 양이 존재하니? 밤이 없으면 낮이 무슨 의미고? 애, 밤이 없으면 낮이라는 말도 없을 거다, 아마.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음·양은 동등해. 털끝만큼도 무겁고 가벼울 게 없단 말이야.

대발: 그렇지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져가지고.

순자: 갈비뼈 같은 소리하지 마라.

대발: 성경에는요. 엄마,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순자: 성경 쓴 사람들이 남자거든.

대발: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쓴 거라고.

순자: 남자의 손을 빌려서.

대발: 잘은 모르겠지만, 주역에도요.

순자: 그것도 남자들이 쓴 거거든.

대발: 좋아요, 바로 말했어요. 요점은 남자하고 여자가 동등하게 똑같다.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훌륭한 거 쓸 동안 똑같이 위대한 여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순자: 남자들이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느라고 우리는 바빴다.

대발: 그게 뭔데요?

순자: 너같이 쓸모없는 자손 퍼트리느라고.

지은: 하하하하.

-〈사랑이 뭐길래〉41회 중

대발은 이사장이 가진 가부장제를 그대로 복제한 대리자이다. 대발은 순자에게 남자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어머니에게 앞세운다. 성실과의 갈등으로 화가 난 순자는 대발과 언쟁을 벌이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순자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이야기하면서 대발의 말이 가진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모자의 대화를 듣던 지은은 웃음을 터트리는데, 이것은 아들밖에 모르던 순자가 대발을 향해 날린 통쾌한 일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라진 순자의 태도에 대한 놀라움의 감정도 담겨 있다.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가정은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살아온 지은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순자와 성실이 조금씩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도 지은이 이사장을 향해 펼쳤던 당찬 자기주장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부터였다. 여기에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성실의 적극적인 반항이 더해지면서 이사장의 가부장적 체면과 질서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독재에 대한 단죄의 열망은 청문회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사회적 사건은 1992년 12월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민주, 자유, 평등에 대한 요구가 거센 시기였고, 사회도 새로운 가치 쪽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권위, 가부장적 사고, 독재와 같은 구시대적 단어들은 타파되어야 할 관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사장의 가부장적 독제는 시대착오적 측면이 존재했다. 그에 반해 세련되고 자상한 아버지와 남편의 표상인 박이사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두 가장의 모습은 ‘독재-민주’, ‘옛 것-새 것’, ‘보수-진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였다.

MBC가 한국궐립에 의뢰한 ‘사랑이 뭐길래 선호도 조

사'를 들여다보면, 당시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보다 면밀히 엿볼 수 있다.

남자들은 대발이 아버지로 나오는 이순재(51.3%)를, 여자들은 지은이 아버지로 분한 김세윤(65.0%)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경우 지은이 아버지(67.1%)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로 판정승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남성 위주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희망사항」으로 분석된다.

남자의 경우 39.9%가 지은이 어머니(윤여정), 37.8%가 대발이 어머니(김혜자) 쪽이 좋다고 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각각 57.8%, 21.1%의 호감도를 보이며 지은이 어머니 쪽이 90년대 인기 있는 어머니상으로 판명됐다. 며느리감으로 지은이(하희라)는 어떨까? 이에 대해 남성(64.0%)보다는 여성(70.4%)이, 20대(64.5%)보다는 50대 이상(70.5%)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평균 5명 중 3명 꼴(67.4%)로 지은이에게 호감을 보이며 일단 지은이는 며느리감으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비되는 두 가정 중에서 어느 쪽의 주부가 더 행복할까? 시청자들은 전통적이고 순종적인 대발이 어머니(16.1%)보다는 제 목소리를 내는 지은이 어머니(66.0%)쪽이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전체적인 선호도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의 실체는 보수적인 대발이 가정(37.7%)쪽이 개방적인 지은이네(34.9%)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답했다.<sup>35</sup>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천 5백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992.3)에서 남성 시청자는 이사장에게, 여성 시청자는 박이사에게 각각 더 높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 집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라는 질문에 대발이 가정 쪽이 37.7%, 개방적인 지은이네가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으로 평가하는 시청자들이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어머니 상으로는 남

녀를 불문하고 '심애'에게 더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고, 스스로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심애가 순자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며느리감으로 지은을 평가할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후한 점수가 나왔다는 점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며느리가 가부장적 가정을 변화시키는 드라마 속 판타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종합했을 때, 당시의 실제 가정은 이사장네에 더 가까웠고 박이사네의 모습은 여성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랑이 뭐길래>가 전국적으로 압도적 인기를 끌면서 사회에서 강력하게 몰아치던 자유와 평등의 바람은 가정 내로 옮겨왔고, 변화를 요구하는 촉매로 작동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중들은 스스로의 가풍을 되돌아보며 이사장과 박이사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념과 정치가 <사랑이 뭐길래>에 걸로 드러난 바는 없었으나, '보수-개방', '독재-민주', '가부장적 가치-평등의 가치'를 나열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김수현은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에 대해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는 없다. 코믹 드라마인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얘기를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로 예민한 논쟁을 회피했다.<sup>36</sup> 그러나 두 가정의 극단적인 모습을 대조한 후 시청자들의 선택을 바라는 식의 구조는 김수현이 가진 작가적 '자의식의 산물'<sup>37</sup>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교를 통한 선택으로 가정이 가진 모순을 인식하고, 더 나은 가풍을 형성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드라마가 가진 이면적 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랑이 뭐길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온 현실 반영적 드라마였다. 결국, 시청자들에게 있어 드라마 속 두 가정은 브라운관 위에 펼쳐진 허구의 대상이 아니라, '계층적 대표성'<sup>38</sup>을 보

36 서화동, 「사랑이 뭐길래 인기 작가 김수현씨 드라마만 심심할 때 보는 것」, 『경향신문』, 1992.2.22.

37 김경수, 「김수현 가정드라마의 특징과 의미: <사랑이 뭐길래>를 중심으로」, 『소설·농담·사다리』, 역락, 2001, 205~206쪽.

38 이철우,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한국학연구』 2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5.6, 111쪽.

35 강경희, 「주부들 "지은이 아버지상 좋다" 67%」, 『조선일보』, 1992.4.3.

여주는 표상이 된다.

이사장네 가정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박이사네의 다소 사치스러운 삶을 반성하면서 두 집안은 균형을 찾게 된다. 두 집안의 변화와 함께 대발과 지은의 2세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사장네의 변화에 비하면 박이사네의 변화는 별다른 게 없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사장이 양보한 가부장적 가치관은 결국 ‘가부장제의 몰락’을 의미할 정도로 큰 변화이지만, 박이사네가 받아들인 검소함은 그저 좋은 ‘미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4. K-드라마가 보여준 중산층 판타지

〈사랑이 뭐길래〉는 당시 한국의 사회적 요구와 중산층 신화를 자극하는 측면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지극히 한국적인 시대상이 반영된 이 드라마에 중국 시청자들이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머는 만국의 언어일 것이다. 오락성 짙은 홈드라마는 중국 시청자들에게도 유쾌한 이야기였고, 더군다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 결합하여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해피엔딩 결말은 남녀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이야기였다. 또한, 순애가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을 공경과 인내로 섬기는 모습은 지금은 없어진 대가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55세 이상의 노인 및 장녀층에서 높은 인기<sup>39</sup>를 끌 수 있었던 요소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사장이 가진 가부장적 가치관은 문화 대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근절된 유교사상의 잔재였다. 보편적 사회주의 사상이 자리 잡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으나, 나이든 세대들에게는 어렴풋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함을 선사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흥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드라마가 가진 이야기적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상도 〈사랑이 뭐길래〉의 흥행에 도움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되었고 소련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표방하게 된다. 〈사랑이 뭐길래〉가 방영되던 97년에는 등소평 사망이라는 내부적인 큰 사건과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휩쓸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했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국가적 위상을 인정받기에 이른다.<sup>40</sup> 닫혀 있던 중국의 시장은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갔고, 그동안 엄격하게 닫혀 있던 사회주의적 가치관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즉, ‘닫힘’이 ‘열림’으로 바뀌는 시기였으며, 기존의 체제와 가치를 넘어 새로운 변혁을 모색해야 할 때였다. 이 무렵 중국의 가정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격렬하게 충돌하던 두 가정이 행복하게 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개방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조금씩 이해하고 조율해 나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사장네가 ‘과거’를 상징한다면 박이사네는 ‘현재’를 상징하고, 이 둘이 결합하여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이야기 구조는 당시 중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개방 정책과도 맥락이 일치했다.

또한, 중국에 도입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무엇보다 ‘경제적 부’에 눈을 뜨게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 당국 역시 모두가 잘 사는 중산층 사회를 하나의 목표로 내세웠다.

중산층에 대한 국가 지원 담론은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담론은 소비와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불평등과 잠재적 계층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된 사회 담론으로 관심을 돌리고자 한 것이다.

40 케리 브라운, 김홍규 역, 『현대 중국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4, 173~186쪽.

39 이경자, 앞의 논문, 153쪽.

The state-sponsored discourse of the middle clas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C. It is designed to encourage consumption and hard work. It is intended to be inclusive, drawing attention away from the extremes of inequality and potential class conflict.<sup>41</sup>

중국에서의 '중산층 담론'은 계층간의 불평등과 잠재적 갈등에서 벗어나 소비와 근로를 장려하는 하나의 국가적 기획이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은 보통의 수준 혹은 일반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계급의 이름이었으며, 경제적 부가 일정 부분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을 주는 사회적 지위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산층 담론은 중국 당국에 의해 주도되었고, 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문이 열리면서 세계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인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나아진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중산층'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때 <사랑이 뭐길래>가 보여준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주택, 멋진 인테리어, 수준 높은 문화는 그들이 곧 도달하게 될 중산층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판타지와 같았다. 바쁜 생활 속에서 다른 이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이 소유한 가치를 직접 보기 어려운 현대인들은 TV를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접한다. TV는 그런 욕망을 내밀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면서, 하나의 계층적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sup>42</sup> 중산층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문화, 가치, 소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였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성공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과 풍모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드라마로, <사랑이 뭐길래>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통용된 욕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 5. 결론

<사랑이 뭐길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적 사회상과 시대적 열망을 잘 반영한 작품이었다. 안으로는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양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였고,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던 대변혁의 시기였다. 시대는 소란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아진 형편을 바탕으로 “나도 남들만큼 산다”라는 인식을 품고 있었고, '보통 사람' 담론과 겹치면서 모두를 중산층의 신화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다른 계급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역시 그에 걸맞은 태도와 문화가 필요했다. 이 무렵, 중산층의 세대를 재현한 <사랑이 뭐길래>는 다양한 중산층의 지위재(地位財)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본이 되어주었다. 또한, 이사장과 박이사네로 상징되는 두 개의 가치관은 선택에 대한 고민과 정답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졌다.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화를 획득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사장보다는 박이사가 더 적합한 선택지로 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드라마가 지닌 은밀한 주제 의식은 그래서 많은 사회적 논쟁을 동반하였고, 종영 이후에도 많은 비판적 담론을 형성했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풍속을 조망한 <사랑이 뭐길래>는 뜻밖에도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된다. 국가와 문화가 가진 정체성은 서로 달랐지만,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중산층 담론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청자들 역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중산층다움에 관한 욕망이 존재했고, <사랑이 뭐길래>에 감응하였다. 또한, 유쾌한 가정 드라마의 형식 속에 숨겨진 침예한 가치관의 충동을 모범적으로 절충하고 수용하는 이야기에서 행복한 미래를 떠올릴 수 있었다. 다른 두 나라의 비슷한

41 David Goodman, *Class in contemporary China*,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4, 116쪽.

42 존 피스크, 곽한주 역, 『텔레비전 문화』, 컬처북, 2017, 91~94쪽.

세대와 욕망은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매개로 공명했고, 그것이 뜻밖에도 한류라는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K-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경쟁 방안과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시대적 욕망에 대한 진솔한 표현과 비판, 이것을 가장 한국적인 틀에 담아내어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세계인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K-드라마의 미덕이다. 이런 가능성을 가장 처음 보여준 작품이 <사랑이 뭐길래>이고, 본 연구가 다시 이 드라마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김수현, <사랑이 뭐길래>, 1991.11.23~1992.5.31.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 2. 단행본 및 논문

- 구해근,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창비, 2022.  
권호영·김영수,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송영상물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금인숙, 「<사랑이 뭐길래>와 <義不容情>: 홍콩과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기호학적 비교 분석」, 『한국사회역사학회』 4,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김경수, 「기수현 가정드라마의 특징과 의미: <사랑이 뭐길래>를 중심으로」, 『소설·농담·사다리』, 역락, 2001.  
김길성, 「방송콘텐츠가 한류문화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박재복, 「글로벌시대 한국 TV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MBC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배국남, 「5000년 역사 속 가장 큰 문화적 사건, '한류': <사랑이 뭐길래>에서 싸이까지」, 『방송작가』 80, 한국방송작가협회, 2012.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上)』, 새물결, 2006.  
신태섭, 「사랑이 뭐길래」, 『말』, 1992.2.  
윤호진, 『한류 20년, 대한민국 빅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이경자, 「한중 프로그램 교역과 중국 시청자 반응」,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상호교류 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  
이철우, 「<사랑이 뭐길래>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한국학연구』 2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5.  
이형, 『당신은 중산층인가: 한국경제의 신화와 실상』, 삼성출판사, 1980.  
존 피스크, 곽한주 역, 『텔레비전 문화』, 컬처룩, 2017.  
주정민, 「텔레비전 드라마의 이미지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의 이순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2.  
케리 브라운, 김홍규 역, 『현대 중국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4.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출판부, 2005.

---

**Abstract****Middle-class Desires and the Times Revealed in the First-generation K-drama <What is Love>**

Han, Seung-Woo | The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What Is Love> that displays the eating habits, tastes, educational orientation, and language usage of middle-class families, and makes viewers seriously think about the dignity and culture of the middle class. This drama, which explores the customs of Korean society, unexpectedly received a great response in China. This is because China shared a similar middle-class discourse as Korea, although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ies were different. Just like Korean viewers, Chinese viewers were also drawn to the desire for middle-classness shown in the drama and responded to <What Is Love>. Similar social situations and desires in two different countries resonated through a single drama, and unexpectedly, it was able to lead to a great response called the Korean Wave. The first Korean drama, <What is Love>, demonstrated that the virtue of K-drama which appeals to people around the world, is to convey honest expressions and criticisms of contemporary desires in the most Korean way.

**Keywords** Korean Wave, Hallyu, K-Drama, What is Love, Middle Class Discourse, Current Affairs

---